

아동문학

2006년
가을호

(루게 제 116호)



아동문학

중국조선족순수아동문학전문지

2006년 가을호(루계 제116호)

연변언문출판사



차례

편집위원회

주 임: 류연산
부 주 임: 김현순(상무)
편집위원: 김득만
김만식
리태학
한석운
최문섭
허호범

도서질감독전화
0433-2902102
0433-2902135

편집부주소
延吉市友谊路363号
延边人民出版社
《儿童文学》编辑部
우편번호: 133000



소설

- 002/ 옹고집 부리던 아이들 -최 준
- 068/ 해바라기를 닮은 아이 -김자연
- 079/ 돌고래 환환 -말자레 막카이
- 122/ 목각인형 -윤시섭



최준

동화

- 016/ 호랑이대왕을 골려준 쥐 -정연걸
- 039/ 장난감과 토끼 삼형제 -리원수
- 100/ 신기한 거울 -설병화
- 132/ 토끼와 원숭이 -마해송
- 196/ 하모니카를 부는 곰 -손려평
- 213/ 새끼고기와 고니 -고기와비야끼



정연걸



손려평

동시

- 055/ 소낙비(외 2수) -최길록
- 058/ 성에꽃(외 5수) -지영호
- 062/ 백두산천지(외 4수) -김 파
- 066/ 깜박깜박(외 1수) -리종복

아동문학

R TONG WEN XUE

2006년 가을호 두께 116호

E-mail: admh123@hanmail.net.



민간이야기

032/ 소년부사 리두항

-김재권 정리

115/ 모모도로

-일 본

221/ 여우를 꼬인 수탉

-쏘 런



김재권

기획조명

106/ ·동시조·최문섭

동시조 한마당

-최문섭

112/ ·평론·최문섭시인의

《동시조 한마당》을 읽고

-리상각

168/ ·소설·정말 싫다

-최동일

185/ ·평론·《정말 싫다》의

정말 좋다

-우상렬



최문섭



최동일

노래

바위섬 유치원

-리순작사, 정근 작곡

차례

주 필: 류연산

부 주 필: 김현순(상무)

책임편집: 김현순

책임교정: 최순란

기술설계: 정려란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吉林省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7印张 字数: 250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645-6 / I·93 (民文)

版次: 2006年9月 第1版 2006年9月 第1次印刷

印数: 1-300册

定价: 12.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158/ 팽이(외 4수)

-박흥률



박흥률

162/ 시간(외 2수)

-리금덕

165/ 진달래꽃(외 3수)

-리성비

동시조

153/ 아침(외 4수)

-리상각

156/ 첫눈(외 3수)

-김현순



김상각

수필

028/ 영예

-윤호남

051/ 종이배의 꿈

-유경환

192/ 선생님의 미소

-박동하

209/ 해묵은 백양나무

-주영애



박동하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儿童文学.2006年秋季版 / 柳燃山主编. —1版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6.3

ISBN 7-80698-645-6

I. 儿… II. 柳… III. 儿童文学—作品综合集—世界—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18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6) 第020803号

此为试读, 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 소설 ·

옹고집 부리던 아이들

최 준

《따르릉! 따르릉...》

하루의 수업시간을 끝마치는 하학종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철수와 영수는 책가방을 메고 다정히 어깨동무하고 초중교문을 나섰다. 헌데 교문을 나서서 얼마 걷지 않았는데 영수가 철수의 옆구리를 툭 치며 나지막이 말하였다.

《뒤를 좀 봐, 저 자식이 우리를 따라온다!》

《야, 누구 말이야?》

철수는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오, 정철이구나!》

정철은 아주 어색해하며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보아하니 그들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리라고 여겼던

모양이었다. 흠칫 놀란 정철은 아침하듯 병긋 웃더니 그들에게 말을 걸려고 입술을 움직거렸다. 그러다 그들이 눈초리를 곳곳이 일궈세우고 싸늘한 눈길로 쏘아보는것을 힐끔 보고는 제격 입을 다물었다.

철수는 앙큼하고 무서운 도끼눈으로 일부러 정철이를 흘겨보았다.

영수는 《흥》하고 코방귀를 끼었다.

정철은 촌닭 관청닭 구경하듯 어리뻑뻑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철의 입귀가 무섭게 떨리고 떨리는것이 한눈에 안겨왔다.

《야, 영수야, 저런 놈과는 말도 말아. 아무 쓸데없어!》

철수는 영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영수는 더 친한척 팔로 철수의 어깨를 견고는 꼭 붙어서 걸었다. 그들은 일부러 정철이를 끌려주려고 더욱 친근한척하였다.

《아하하!》 얼마간 걸어가서 영수는 귀가 꼭뒤에 가 붙도록 웃어댔다.

《저 자식의 가련한 꼴을 좀 봐. 좀 불쌍하단 말이야!》

《누가 배은망덕하라던? 쌍통이야! 친구가 없으면 얼마나 고독하다는걸 뼈저리게 느껴야 해!》

철수는 성풀이를 하고나니 허전하던 가슴이 좀 후련해졌다.

위낙 소학교부터 철수와 영수 그리고 정철은 한입에 물었던 사탕도 같이 나누어먹던 송아지동무였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극진한 딱친구였다. 그러던 지금에 와선 모순이 생겨 정철이를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였다. 그 누구나 자기의 딱친구한테 물리웠을 때 그때의 감정이 어떻겠

는가 하는것을 곰곰히 생각해보라.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을 때보다 더 분할것이다.

그들이 현건을 한사코 반대한것은 그가 그들을 독사라고 부르면서 너무나도 엄청나게 모욕하였기때문이었다. 현건은 반장이란 턱을 대고 찍하면 동학들을 욕하였다. 그중에서도 철수와 영수가 욕을 제일 많이 먹었다.

《철수야, 영수야! 너희들은 왜 업간체조시간에 참가하지 않니? 또 너네 둘은 왜 어제도 청소를 하지 않고 도망쳤지? 너희들은 무슨 특권이 있어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하니?》라고 현건이 말했다.

철수와 영수는 분통이 정수리까지 치밀어올라 목구멍에서 뿔럭 소리가 나고 눈알이 뒤집히고 손가락이 바르르 떨렸다. 그들은 현건의 귀찮을 같겨놓았으면 속이 아주 시원할것 같았다.

정철은 철수와 영수처럼 그렇게 미움을 받지 않았지만 현건에게 의견이 있었다. 철수와 영수가 주먹이 센 현건과 맞서 대판싸움을 벌리면 정철이도 한켠에서 그들을 도와주었다. 철수와 영수가 뒤에서 현건을 욕질할 때면 정철이도 몇마디 욕하였다. 딱친구가 아닌가? 딱친구라면 웅고집을 버리고 단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건은 참 미욱해. 어찌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을 간섭하려 들까? 건 둘을 들어 제 발등을 까는 바보짓이야. 우리도 이젠 중학생인데 누가 유치원애들처럼 관리하는것을 좋아하겠니? 내가 만약 반장이라면 그런 머저리짓은 하지 않겠다!》

철수가 말하자 영수도 거의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였다.

《그렇잖구! 오래지 않아 학급의 간부를 선거하지 않니? 우린 현건을 나떨구고 정철이를 반장으로 선거하자!》

《허무맹랑한 소릴 말아. 내가 어찌 반장으로 되니? 건틀린 소리야!》

철수와 영수는 정철이가 어떻게 반대하든 학급의 동학들에게 현건을 나떨구고 정철이를 반장으로 선거하자고 여론조성을 하였다.

드디어 학급에서 반장선거가 시작되었다. 동무들이 투표한 결과 현건이가 동학들의 위신을 잃었는지 아니면 정철이가 확실히 명망이 높아선지 정철의 표수가 현건이보다 더 많아 현건이 나떨어지고 정철이가 그를 대신하여 반장으로 당선되었다.

정철이가 반장으로 선거되자 철수와 영수는 너무도 기뻐서 펄펄 뛰었다. 하학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 철수와 영수는 왕자를 모신듯 그의 좌우에서 웅위하며 걸었다.

《정철아, <벼슬>을 하였다고 우리 형제를 잊어서는 안된다!》 철수는 정철의 왼쪽 어깨를 툭툭 쳤다.

《그건 뻔한 일이지. 아무렴 너희들을 쉽게 굴겠니? 근심말어!》

정철이는 달나라에 오른듯 희색이 만면하여 머리를 끄덕였다. 보건대 정철은 입으로는 반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정작 반장으로 되니 자못 기뻐하는것이 뻔하였다.

사실 정철이가 반장으로 된후 철수와 영수는 한동안은 예전보다 펑 자유스러웠다. 철수와 영수는 업간체조에 참가하지 않아도 관계하는 사람이 없었고 청소를 하지 않고 뽕소니쳐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후 많은 동무들이

그들을 본따서 업간체조시간에 교실에 나가지 않았다. 책상주위에 모여앉아 잡담을 하는것이 운동장에 나가 추운 바람을 맞기보다 훨씬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좋은 시일은 얼마 가지 못하였다. 얼마후부터 정철이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어느날 정철이는 룡담삼아 철수와 영수에게 말하였다.

《어이, 너네 둘이 나를 좀 도와주겠니?》

《무슨 일이야? 말만 해라. 친구끼리 그만한것도 도와주지 못하겠니?》철수와 영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업간체조시간에 너희 둘도 운동장에 나가 체조를 하고 청소당번이 되면 뽕소니치지 말았으면 한다! 어땜니? 할만 하지?》

그 말에 철수와 영수는 몸에 뱀이 휘감기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래 현건이 그들을 《관제》하던것과 무슨 차별이 있는가? 그저 그들이 다른 변명을 하지 못하게끔 수단이 고명할뿐이었다.

철수와 영수는 정철이를 다시 한참 바라보다가 《응, 응》하고 건성으로 대답하였다.

《저 자식이 <벼슬>을 며칠 하더니 정말 변했어!》철수는 속으로 몹시 아니꼬와하였다.

《그래 말이야. 정말 소 웃다 꾸레미 터질 일이야!》영수도 화가 나서 두덜거렸다.

그후의 일은 그들을 더구나 성이 나게 하였다. 철수와 영수는 정철의 말을 귀박으로 흘려보내고 제 고집대로 하였다.

그날 점심활동시간에 담임선생님이 철수와 영수를 교무실

로 불렀다.

《동무네절로 말해보시오. 정철이가 반장으로 된후 동무들은 몇번이나 업간체조시간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또 몇번이나 청소당번에 빠졌습니까?》

철수는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정철이가 선생님에게 고자질했다는 생각이 대뜸 떠올랐다.

철수와 영수는 고개를 푹 숙인채 선생님의 훈계를 톡 톡히 받았다. 교무실에서 나온 철수와 영수는 뺨이 나 욕설을 퍼부었다.

《개자식이 우리를 물어먹었구나!》

《슬그머니 고자질했어! 정말 한심한 놈이야!》

범이 제소리를 하면 온다더니 철수와 영수가 한창 욕질하는데 정철이가 저쪽에서 걸어왔다.

《야, 정철아, 거기 좀 서라. 네가 참 장한 일을 했더구나!》

영수가 성난 황소 영각하듯 소리질렀다.

《영수, 너 왜 그러니? 어째서 성을 내니? 응?》

정철은 어정쩡해서 철수와 영수를 바라보았다.

《야, 넌 모르는척하지 말아!》

철수는 정철이를 쏘아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 <괴뢰>처럼 선생님한테 고자질했니?》

《오. 그것말이지?》

정철은 생긋 웃으며 량해를 구하는 어조로 말했다.

《전번에 내가 도와달라고 명백히 말하지 않았니? 그래서 난 선생님께 회보하였다. 이것은 실사구시로 정황을 반영한것이지 고자질한것이 아니야!》



《야, 여우처럼 교활하게 변명하지 말아!》

영수는 천둥같이 소리쳤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처분을 준것만 고자질했다고 하니?》

《현건은 못되게는 놀았지만 <괴뢰>질은 하지 않았어. 우리가 눈이 멀어 너따위도 친한 벗이라고 반장으로 선거했어!》

철수는 무서운 눈길로 정철이를 흘겨보았다.

《네가 현건에 대하여 말하니 나도 몇마디 해야겠다. 너희들, 아니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들이 현건에 대해 너무했다. 좀 지나쳤어, 난 인제야 알았어!》

《웁지, 넌 인젠 현건이와 한동아리가 되었구나!》 철수는 화통이 터져 펄펄 뛰었다.

《<괴뢰>질을 하는것도 성차지 않아 이젠 <반역자>질까지 하려는구나! 인제야 내가 어떤 자식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았다. 지금부터 관계를 딱 끊자!》

영수는 정철의 코등에 대고 샷대질을 하며 말했다.

정철은 황련을 먹은 병어리처럼 말을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오래도록 서있었다.

어른들은 말하기를 《벼슬을 하면 틀이 커지면서 기왕의 벼들을 차버린다》고 한다. 또 《누구나 벼슬만 하면 다 그 본새다》고 했다. 이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다. 그런데 학생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변할가? 정철은 이전에 철수와 영수하고 아주 친하였는데 반장으로 되자마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였다.

정철은 철수와 영수를 잃어버리자 고독해서 다른 벼를 찾느라고 그러는지 아니면 그가 말한것처럼 현건을 새롭게 리해하여 그런지 며칠후에는 현건과 친해졌다. 정철과 현건은 늘 마주 붙어 무어라고 소곤거리며 무척 친근하게 보냈다.

《지금 그 애들 둘은 딱친구가 되었어!》 영수는 뺨이 울퉁불퉁 올라와 씩씩거리며 말하였다.

《그들 둘이 연합하여 우리를 반대하지 않을가? 주의해야 되겠어!》

철수는 정철과 현건이 자기들을 훌끔훌끔 살펴보며 무어라고 말하는것을 보았다. 그래 이것이 자기들을 의논하는것이 아닌가?

그날 담임선생님이 철수를 또 교무실에 불렀다. 철수의 가슴은 터질듯이 왈랑거렸다. 요 며칠은 업간체조에도 꼭꼭 참가하고 위생청결에도 꼭꼭 참가하였는데 왜 또 교무실에 부를가?

《철수학생, 좀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아주 화애로운 기색으로 말씀하였다.

철수는 의아쩍은 눈길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몹시 뛰었다.

《예전에 직일조장은 학급위원들이 겸하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후부터 직일조장을 학급위원들이 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난 철수학생이 직일조장을 맡았으면 합니다.》

《제가요?》

철수는 조장질을 해보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였다.

《요즘 철수학생은 진보가 아주 큼니다. 청소당번때에 땀소니친적도 없습니다. 난 철수학생이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철수가 청소를 꼭꼭 한것은 정철이 또 선생님께 고자질할가봐 무서워서 한것이지 자기가 결코 진보해서 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선생님, 전 <벼슬>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철수는 인차 자기 말이 빗나갔다는것을 알았다.

《하하! 이것도 <벼슬>이라고 합니까?》

선생님은 폭소를 터뜨렸다.

《기실 무슨 <벼슬>을 하든지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뿐만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러합니다. 난 철수학생한테 이 <벼슬>을 꼭 주려고 작심합니다.》

철수는 이런 벼슬은 하기 싫은데 선생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그저 침묵만 지켰다. 싫다는 말도 하

지 않고 과목을 지킨것이 그래 승낙한것과 같지 않은가?
이튿날 조회시간에 선생님이 이 《임명》을 선포하였
다.

《오늘부터 직일조장이 위생청결을 책임질뿐만아니라
업간체조도 책임집니다.》 선생님이 보충하여 말씀하였
다.

철수는 이것이 자기한테 굴레를 씌우는것이라고 느꼈
다.

조회시간이 끝나자 영수가 어느새 달썩달썩 달려왔다.

《철수야, 마침 잘 됐어! 정철이가 인젠 체조에 참가하
든말든 직일을 서든말든 관계하지 못하게 되었어! 이것이
얼마나 좋니? 정말 뜻밖의 일이지. 해해!》

철수는 속이 꿈틀해났다. 《큰일났구나! 영수가 나한테
시끄러움을 끼치자고 드는구나!》

아닌게아니라 영수가 말썽을 일으켰다.

두번째 수업시간이 끝나자 운동장에서 명랑한 《운동원
행진곡》이 울렸다. 업간체조시간이 되었다. 오늘 마침 철
수조가 직일이였다. 직일조장인 철수가 할수없이 의무를
수행해야 했다. 대렬을 거느리고 운동장에 들어서는데 철수
의 가슴은 무한한 자호로 부풀어올랐다. 현대 철수네 학
급대렬이 운동장에 들어서자 파란 운동복을 입고 체조대
에 올라선 체육선생님이 철수를 향해 소리쳤다.

《동무네 학급은 왜 인원이 요것밖에 없습니까? 동문
어떻게 대렬을 거느립니까? 교실에서 나오지 않는 게으름
뱅이들을 몽땅 불러내오시오!》

철수는 자기의 대렬을 뒤돌아보았다. 정말 다른 학급
보다 꽤 적었다.

《철수야, 빨리 불러오너라!》

《학급에 먹칠했어!》

《...》

애들은 의논이 분분했다.

철수는 처음으로 체조에 빠진 애들이 밋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학급의 영예와 밀접한 관계가 된다. 또 령술자의 조직예술과도 관계된다는 것을 느끼었다. 여기까지 생각한 철수는 교실로 달려갔다.

교실에서 영수와 체조에 참가하지 않은 애들이 한창 왁작거리고있었다.

《오늘은 참 자유스러워! 철수가 우릴 부르러 오지 않을거야!》

《운동장은 얼마나 춥니? 하늬바람때문에!...》

《...》

다만 자기의 안일만 생각하는 애들이었다. 철수는 처음으로 대렬을 거느리는 자기의 안면도 봐주지 않는 아이들이 미워났다.

《어서 빨리 모두 체조하러 나가라!》

철수는 교실에 들어서며 소리쳤다.

오구작작 떠들던 교실안은 삼시에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들었니? 먹었니? 빨리 중간체조하러 나가란 말이야!》
철수는 또 짹 소리질렀다.

영수는 눈을 부릅뜨고 철수를 쏘아보다가 한마디 쌍욕을 하고는 썩하니 나가버렸다. 그러자 다른 애들도 모두 욕 몰려나갔다...

영수는 진종일 철수를 보는척도 하지 않았다. 철수는

몇번이나 영수한테 자기의 처지를 리해해달라고 사정하려다가 번번히 코뿔을 맞았다.

하학종이 울렸다. 철수가 본능적으로 책가방을 메고 교실문을 나섰는데 누군가 철수를 불렀다.

《철수야, 임무를 분배해라. 우린 뭘 하라니?》

정철이와 현건은 빙긋 웃었다. 철수는 그제야 자기가 직일조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할수없이 교실에 들어와 책가방을 서랍안에 밀어넣었다.

철수는 간단하게 담당구역을 분공하고 비자루로 바닥을 쓸러는데 애들이 떠들어댔다.

《영수는? 또 뽕소니쳤구나!》

《그가 뽕소니치면 우리도 뽕소니치자!》

《조장이라면 대공무사하게 그 애를 데려와야 해!》

《그렇잖으면 우리도 청소를 하지 말자!》

《...》

철수는 엉덩이에 불이 달린것처럼 참기가 어려웠다. 이건 모두 영수때문이야! 오늘 그 자식을 기어코 붙잡아와야지!

철수는 횡하니 달려나갔다. 교문을 나서려는 영수를 막아섰다.

《너 또...뽕소니치자구?》

《비켜!》영수는 소리쳤다.

《찌꼬만 <벼슬>을 하자마자 우쭐렁거리는구나! 내가 눈이 멀었어! 넌 정철이나 현건보다 더 나쁜 놈이야!》

영수는 칼날같은 눈길로 철수를 흘겨보다가 침을 탁 뱉고는 줄행랑을 놓았다.

철수는 그 자리에 조각상처럼 굳어졌다. 그는 흥두께